현대·기아車, 英 어라이벌에 1억유로 투자

〈상업용 전기차 업체〉

성장 빠른 유럽시장 대응… 전기·수소 '투 트랙' 전략 수립

현대 8000만·기아 2000만 유로
도시에 특화된 소형 전기차 개발
플랫폼 기술·양산차 개발역량 결합

(왼쪽부터)어라이벌의 아비나시 러구버CSO, 데니스 스베르드로프 CEO,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 알버트 비어만 사장, 현대차 상용사업본부 이인철 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가 거액을 투자해 전기차 방식을 혁신하고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역량을 제고했다.

현대기아차는 16일 영국 상업용 전기차 업체 어라이벌에 1억유로(약 1290억원) 규모의 전략 투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8000만 유로, 기아차 2000만유로다.

이번 투자는 현대기아차가 '클린 모빌리티'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기차 개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앞으로 도시에 특화된 소형 상용 전기차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유럽에 경쟁력 있는 가격의 친환경 상용 전기차를 선보이고, 성장이 빠른 유럽 시장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양사는 이날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에서 알버트 비어만 사장과 어라이벌 데니스 스베르드로프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투자 및 전기차 공동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어라이벌은 2015년 설립된 상용차 중심 전기차 개발 기업이다. 영국과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에 생산 공장과 연구개발 거점을 갖고 있다.

특히 어라이벌은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이 플랫폼은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와 구동 모터를 표준화된 모듈 형태로 스케이트 보드 모양에 탑재하는 방식이다. 이 플랫폼 위에 용도에 따라 다양한 차체를 올릴 수 있어서 원가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요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도 용이하다. 개발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어라이벌은 이미 플랫폼을 이용해 화물 운송용 밴을 제작해 유럽에 물류업체들과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대기아차와도 중소형 크기 유럽 전략형 밴과 버스 등 상용 전기차를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는 플랫폼 기술과 양산차 개발 역량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전세계적 정부가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급성장할 소형 전기 상용차 시장 공략에도 가속을 붙일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유럽 내 물류업체에 상용 전기차 공급 뿐 아니라, 카헤일링과 수요 응답형 셔틀 서비스 등 모빌리티 업체와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대기아차가 최근 개발 계획을 밝힌 전기차 기반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에도 플랫폼을 적용 가능하다.

유럽 친환경 상용차 시장에 순수 전기차와 수소 전기 '투 트랙' 전략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현대차는 스위스 H2에너지와 '현대 하이드로젠 모빌리티'를 설립하고 수소전기트럭 수출을 개시한 바 있다. 2025년까지 16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 알버트 비어만 사장은 "유럽은 환경규제 확대로 인한 친환경차의 급속한 성장이 기대 되는 시장"이라며 "어라이벌과 상용 전기차 공동 개발을 통해 유럽 시장을 필두로 글로벌 친환경 시장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 전략기술본부 지영조 사장은 "이번 투자는 현대·기아차가 추구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급변하는 친환경 자동차 시장 대응을 위해 어라이벌과 같은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와 협업을 가속화해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겠다"고 자신했다.

어라이벌의 데니스 스베르도르프 CEO는 "어라이벌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차세대 전기차 제품 군을 개발하고 있다"며 "현대·기아차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품질의 자동차를 선보이고 있으며, 이번 전략적 협업은 우리가 전세계에 차세대 전기차를 선보이는 것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과정 설명을 듣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인터넷·스마트폰으로 장보세요"

박영선 장관 '동네시장 장보기' 이용
중기부, 전통시장의 스마트화 지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6문 앞에서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를 이용해 떡국떡 한 봉지와 제수용 사과 3개를 샀다.

모바일로 물건을 구입한 박영선 장관은 "전통시장의 저렴한 물건을 인터넷으로 장 볼 수 있으니까 워킹맘들이 좋아하겠네요"라고 말했다. 암사종합시장은 전통시장 온라인 시장 플랫폼 중 하나인 네이버의 '동네시장 장보기'에 처음 진출한 시장이다.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는 중기부가 준비한 스마트 상점 서비스 확대의 일환이다. 지난해 중기부와 자상한기업 협약을 맺은 네이버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동네시장 장보기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스마트 상점 홍보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삼성重, 美 PDC사 드릴십 중재 재판 승소

英 재판부 3690억 지급 명령

삼성중공업이 미국의 퍼시픽드릴링(PDC)과의 드릴십 1척 계약 해지 관련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PDC에 있다며, 총 3억1800만 달러(약 3690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금을 삼성중공업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PDC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1700만달러에 수주하고 납기 내 정상 건조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0월, PDC가 건조 지연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건설 세계 최초 공기청정 세대 환기 시스템 개발

'H 클린알파 플러스' 소비자에 선봬
미세먼지·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

현대건설이 세계최초 공기청정 세대 환기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현대건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토탈 솔루션 'H 클린알파 플러스(Clean α+)'를 완성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현대건설만의 독자적인 특허 기술인 공기청정 세대환기 시스템은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헤파 필터로도 제거할 수 없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폼알데하이드·박테리아·바이러스·곰팡이 등을 제거 가능한 제균 기능까지 갖춘 세대환기 시스템이다.

지난해 선보인 'H 클린현관·H 아이숲·유해물질 흡착벽지' 등을 제공하는 미세먼지 토탈 솔루션 'H 클린알파'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현대건설이 그동안 축적해온 모든 기술력을 총동원해 청정 이상의 가치를 고객에게 선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기술이다.

H 클린알파 플러스는 그동안 선보여온 'H 클린알파' 시리즈의 완성을 위해 미세먼지 제거는 물론 제균 기능을 포함한 세계최초 세대 환기용으로 개발된 독자 특허기술이다.

현대건설은 전열교환 환기장비 및 천장형 공기청정기를 연계한 하드웨어 장치, 상온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제균 장치, 실내외 공기질을 측정하여 상황에 맞도록 자동 운전시키는 센서 유닛 일체형 제어기 등도 통합 개발했다.

실내 통합센서(미세먼지, 온습도, VOCs, CO2)연동을 통해 유입 또는 실내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이산화탄소 및 각종 유해물질들을 자동으로 관리해 실내 공기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IoT 연동제어로 실내외 어디서든지 모바일을 통해 집 안의 공기질 상태확인 및 제어가 가능하다.

H 클린알파 플러스는 특허출원은 물론, 국내 최초로 PA인증(한국오전자외선협회 인증)을 획득해 공기살균기로서의 기능도 입증 받았다.

/정연우 기자 ywj964@

한전, 전통시장 환경개선·활성화 등 5년간 285억 투입

1450개 전통시장 대상 맞춤형 지원

한국전력공사가 일몰되는 특례할인 제도 대신 전통시장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환경개선,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5년간 285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사실상 일몰(종료)된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전은 전국 1450여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전방위 맞춤형 지원을 시행한다.

한전은 매년 57억원씩 5년간 총 285억원을 투입해 한전의 고유 사업과 연계한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등 3개 분야에서 한전과 전력그룹사가 맞춤형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은 전통시장 개별 점포의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전동기 교체, 상업용 고효율 냉장고·냉난방기 구입비 등을 지원해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매년 8억6000만원씩 총 43억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에는 연간 32억원씩 총 16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전통시장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와 배전설비 정비를 지원하고 공용주차장에 전기차(EV) 충전기를 설치하는 데 활용된다.]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등 시장 활성화 지원 활동에 연 16억4000만원씩 총 8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오는 6월 완전히 종료되는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대체하기 위해 나왔다.

한전 관계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통해 전력사업의 특성과 연계한 고객 맞춤형 지원모델을 제시하고 시장 활성화 등 지원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로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